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10월 6일(금)
(음력 8월 17일)

Пятница

6 октября 2017 г.

№ 39(11675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5일은 교사의 날이다.

이 블라디슬라브 호도예위츠 선생은 작년에 사할린국립대를 졸업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전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한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5, 7, 9 학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젊은 남교사의 수업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예식기자 촬영)

사할린주민, 소득 분배 반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할린 사회의 가장 큰 화제는 제품분배협정에 따라 사할린-2 프로젝트로부터 취득된 소득을 연방정부에서는 다르게 분배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협정에 따라 사할린주 예산은 소득의 75%를 받았고 연방예산에는 25%가 들어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의 75%를 연방예산으로, 나머지는 주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연방정부는 주장한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해 3년간 연방예산으로 684억 루블리가 이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법안을 상정하여 10월 11일 국가두마 회의에서는 첫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하여 사할린주 예산은 큰 적자로 사회복지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흐콤> 통신사 크세니야 세묘노와 편집장 발의로 이 사태를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하루 펼쳐졌고 서명운동이 추진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에는 사할린의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인 블라지미르 산기 님프 작가가 직접 서명하기도 했고 서한 내용에 공감한 서민 1만7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과 명단은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10월 5일 (7킬로그램)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기자)

주지사, 우수 교사들 포상

10월 5일은 러시아에 교사의 날이다. 이날 앞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사할린의 우수 교사들에게 포상했다.

현재 사할린주 교육기관들에서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사의 5분의 1은 35세 미만의 젊은 교육자들이고, 3분의 1은 고급 또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이날 교사의 날은 국민 모두의 명절이라며 자격을 지닌 재능있는 교육자는 일반인들의 삶과 우리 섬지역과 나라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연방예산과 주예산의 상금을 받게 된 <우수 교사>콩쿠르의 우승자들에게 상장과 꽃다발을 수여하고 교육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린 추가 교육기관 교사, 학령 전 교육기관 교육자들에게 사할린주의 상을 수여했다.

한적, <사할린 2-3세대 모국방문>사업 진행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처음으로 '사할린 2~3세대 모국방문'사업을 진행한다. 한적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사할린한인 2~3세대 264명(처음 250명 계획)이 8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에서 208명이 모국방문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여러 등지에 거주하는 사할린출신의 한인들'이라고 전했다.

첫 방문단(4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28일 한국을 찾았다. 영주귀국자 부모·조부모와 상봉하기 위해 사할린 한인2~3세대들은 1주일 일정으로 한국으로 떠난다. 일정 프로그램 중 하루는 방문객들이 서울의 명승지 견학이 있다.

단신

사할린 고문서보관소 전문가들의 출판물, 국제콩쿨에서 대상 받아

사할린 고문서보관소 전문가들의 3권의 책이 10월 2일 키로브시에서 진행된 <인문과학 분야의 우수 학술 서적 2017>국제콩쿨에 소개되어 모두 수상하게 되었다.

이 콩쿠르는 지역 간 교육혁신기술센터와 키로브대학의 게르첸 학술도서관이 주최했다. 287개 학술서적 중에 2권으로 된 <사할린 유배지(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기) 문서와 자료> 서적이 대상을 받았고 <천 개의 열도 땅으로. 1946년 쿠릴 탐방> 사진집과 <보물의 섬: 북사할린. 문서 자료집.>(저자 웨.아볼찐)은 <역사, 고고학, 민속학>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주 문화고문서보관부가 전했다.

제3회 <눈의 물리학, 화학과 역학>

국제학술회 개최

10월 2일-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3회 <눈의 물리학, 화학과 역학>국제학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설과 눈사태에 대한 연구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스키장 이용과 건설 시 발생하는 적체된 눈의 문제도 검토했다. 학술회 조직 진행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7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연구가들의 발표가 소개되었다.

학술회 프로그램에는 발제 외에도 현장 세미나,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설문제를 놓고 좌담회를 진행했다.

사할린국립대, <메디아위스토크>국제포럼 열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메디아위스토크(동양언론)>국제포럼이 개최된다. 여기에 러시아 및 중국에 18개 지역의 21개 대학 학생대표 80여 명이 참가한다. 포럼의 목적은 청년주도 단체의 결속과 러시아와 해외 정보공간 형성, 청년들의 언론기획 창조를 위한 신입기자들의 활동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포럼은 <스타트(출발)>와 <프로피(전문 실습)> 두 방면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포럼 일환으로는 실습교실, 좌담회, 프레젠테이션과 특강 등이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는 향후 청년포럼은 사할린에서만 아니라 나아가 극동지역에서 매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0월 7일, 사할린주 의료기관들에서 유방검진 행사 펼쳐져

10월 7일 사할린주 의료기관들에서 무료 유방검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 제4, 제6 진료소와 상담진료센터, 아니와·돌린스크·코르사코브·흙스크·포로나이스크 구역병원들의 진료소들에서 주종양학 센터의 전문의들이 검진한다. 검진은 35세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티몹스코예·네웰스크·오하·쿠릴스크·세웨로쿠릴스크·유즈노쿠릴스크 구역병원들에서는 본 기관 의료전문가들이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교육열이 높은 사할린한인들에게 있어 교직은 옛날부터 존경스럽게 여기는 직업 중 하나다. 교사는 자기 전공과목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이런 교사 중 한 분이 김기희(러시아명 마리나 니콜라예브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리체이 수학교사다. 55세를 바라보는 김기희 교사는 이미 30여 년간을 교직에 종사하고 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우리반 담임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반 아이들 중에서 물리와 수학 관련 전공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라고 김기희 선생은 수학교사를 꿈꾼 이유를 설명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5중학교를 졸업한 김 선생은 바로 극동국립종합대학(블라디보스토크, 현 극동연방대학교) 응용수학과에 입학했으나 대학 3학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으로 편입해야만 했다. 이유는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형제 1남3녀 중에서 둘째였지만 그 당시 언니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 선생의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직 여러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보살핌의 손이 필요했다. 그러나 김 선생의 아버지는 1년 반도 못 되어 어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기에 대학 4학년때부터 제15 일반학교 - 모교에서 수학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김 선생은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직생활의 절반인 16년을 보냈다. 그중 4년은 교양담당 부교장으로, 마지막 3년은 교장선생으로 활동했다.

경제위기가 심하고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 그 당시 교사의 월급이 쥐꼬리만한데다가 제때

10월 1일은 교사의 날

수학문제 풀기를 즐기는 김기희 선생

교사는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교직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교직을 유지하기도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다.

블라디미롭카 동네에 자리한 제15중학교는 김 선생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한인동포 학생수가 71%였다. 시내 외곽에 있는 이 학교는 그 당시 작은 가정학교 분위기였다고 김 선생은 말한다.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학교를 마친 뒤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로 보냈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학교를 잘 찾아오고 선생들도 학생들의 가족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 교사들도 대부분이 20-30년 동안 교직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3년에 이 학교에 740명이었던 학생수는 나중에는 560명까지 감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떠나 이사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사람들의 빈부격차도 급속도로 커지던 때에 가족형편이나 학생들의 형편에도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

학교가 우범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학교에 범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신경도 써야 했었다. 당시 이 구역과출소 경찰들이 많은 도움

을 주었다고 김 선생은 말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과 김 선생의 옛 제자들, 친구, 지인 등 도움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90년대에 이 학교에는 젊은 남자교사 몇 명이 채용되었는데 현재 주정부에서 행정부 부실장으로 있는 이성철 씨가 그중 한 분이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후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펼치며 여름에는 야외 캠프 활동도 했었다.

2000년도에 김 선생은 여러 사유로 교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예 교직을 떠나기로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 딸들을 혼자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으로 가서 노동전선에 뛰어들었다. 지인을 통해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3개월도 못 버텼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할린으로 돌아와 처음엔 공과전문학교에서 조금 일하다가 2000년에 제1리체이(전 7중학교)에 수학교사로 교직에 복귀했다. 사실 교장직 제안도 들어왔지만 김 선생은 학교 운영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일반 교사로서만 활동하기로 결심했었다고 한다.

제1리체이에서는 2015년까지 15년을 근무하는 동시에 사할린주교육진흥원의 전문평가센터에서 국가시험검사에 학과목 위원회의 활동을 담당했다.

제1리체이는 물리수학, 생물화학의 특수전문학교나 다름없다.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물리수학반에서는 물리학과 수학 수업, 생물화학반이면 생물학과 화학 수업의 시간이 훨씬 많은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꽤 높다. 김 선생은 학과목 교사가 자신의 적성에 맞았다고 한다. 수학을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수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김 선생은 말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는 김 선생은 학교는 자신의 일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웃으며 덧붙여 말했다.

김 선생은 대화 중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해 '저의 아이들'이란 표현을 쓰고 '저희 아이들이 훌륭하다'는 표현도 여러 번 반복해 말했다. 김 선생은 졸업한 학생들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김 선생에 따르면 제자의 대다수가 비교적 길이가 잘 열린 삶을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대로 능력을 펼쳐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김 선생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30여 년 교직 생활을 하다보니 가족의 선생이란 느낌마저 들었다. 그것은 김선생이 제15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처음으로 졸업시킨 한 학생(박 이고리)의 딸을 리체이에서 가르치게 되어 또한 담임교사로서 졸업까지 시켰기 때문이다.

늘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김기희 선생은 "항상 선생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좌우명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교사의 자격에 대한 요구가 몇 배나 높아진 상황에 좋은 교사는 학생이 자습을 할 줄 알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자발적 학습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러시아에는 과외수업 또는 학원수업이 인기가 아주 많다.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

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선생은 제1리체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 중 한 명도 수학 과외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매일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수업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 프로그램에 쫓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문제 등을 보충수업 시간에 풀었었다. 사실 이 보충수업은 봉사였고 학교에서는 수업 외 선택과목 수업 시간만 지원했다.

2년 전 김기희 선생이 교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만딸의 큰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여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고 둘째 아이는 1살로 딸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자는 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혼자 집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오래전부터 제2리체이학교의 청으로 김 선생은 올 9월부터 다시 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11학년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김 선생이 교사로서 우수자격을 갖고 있다는 건 학생들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것과 좋은 대학 입학한 것, 많은 러시아 연방 교육부 표창장, 감사장, 지역 포상장 등이 인증 역할을 한다. 어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김 선생은 인정받고 있다.

김 선생은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길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남편과 러시아, 외국 여행을 즐기게 되었고 여행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만난다고 말한다.

김 선생에게 있어 한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네벨스크시, <청년 미디어센터> 열려

<네벨스크 보도>통신사 산하 <청년 미디어센터>가 개설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14세부터 20세까지의 청년들은 TV언론에서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센터는 주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기획 콩쿠르에서 수상한 덕에 개설될 수 있었다.

이미 공식적으로 개설된 <청년 미디어센터>에 네벨스크 시장 권한 대행 블라지미르 코펠로브, 이 기획의 파트너로서 올라 텐 시행정부 교육부 부장, 그리고 청년 기자들이 참석했다.

미디어센터 사무실에는 5개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창작그룹의 시설 내에 비전문적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설비, 비디오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미디어센터는 이미 9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의 참가자들은 <그런데>란 티비잡지 제작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이들은 주제의 제목을 고안해 내고, 촬영과정의 세부 계획을 검토하며 촬영에서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작성하고, 시청자에게 준비된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방자치제 행정부 사이트는 전하고 있다.

В Невельске появился «Молодежный медиацентр»

На баз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Невельские новости» открыли «Молодежный медиацентр».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олодые люди от 14 до 20 лет теперь 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в тележурналистике. Он появился благодаря победе в конкурс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Уже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Молодежного медиацентра».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и.о. мэра Владимир Копылов, партнер проект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Ольга Тен, а также юные журналисты.

В помещении медиацентра оборудовано пять рабочих мест.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ы цифровые полу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видеокамеры, компьютер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для видеомонтажа.

Уже с 30 сентября медиацентр начал свою работу.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создании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журнала «Между прочим». 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думать темы сюжетов, проработать детальный план съемочного процесса, реализовать полный цикл - от съемки до монтажа - и выдать зрителю готовый результат,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코르사코브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우수 의상 콩쿠르 개최

9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의상>콩쿠르가 전개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의 착한 마음>가족 친환경 축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콩쿠르에는 사할린 두 도시의 유치원 교사들과 학

교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에게 동화 속 주인공들의 복장을 고안해 만드는 과제를 내 주었다. 그러나 조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 판자, 비닐, 포장재 등의 재활용품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콩쿠르에서는 거친 천으로 재봉된 옷도 접수된다.

콩쿠르는 의상 전시와 평가의 2 단계로 이뤄진다. 행사는 10월 12일 주중양도시와 코르사코브 유치원과 학교들에서 진행된다.

행사 폐막은 지역 교육기관들에서 진행된 동화 속 주인공들의 행진으로 마무리되고 행진의 절정으로 플래시몹이 전개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가족 친환경 축제 <사할린의 착한 마음>의 상징인 하트 모양을 윤무로 만들 계획이다.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школ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проводят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стюм из вторсырья

28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был дан старт конкурсу "Эко-скафандр"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костюмов из вторсырья. Мероприятие это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семейного экофестиваля "Добрые сердца Сахалина".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уют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учащиеся школ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город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ложили ребятам придумать и сделать костюмы сказочных героев. Но есть одно условие — наряды должны быть изготовлены из вторсырья, к примеру, из пластика, картона, целлофана, одноразового упаковочного материала. На конкурс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ся костюмы, сшитые из грубых тканей.

(8면에 계속)

전후 시기를 살피는 전시회

조선학교, 일본 학교, 사할린극장 소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9일(금)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기념 <전후 사할린: 교육, 문화(1945-1964)>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는 주미술관과 사할린주국립역사고문서보관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있는 개막식에서 전시회 큐레이터인 하이 올가 미술관 총연구전문가는 이번 기획전시는 3년 전에 사할린 조선학교를 주제로 계획돼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더 넓혀 전쟁 이후 교육과 문화 상태를 잘 드러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주문화고문서보관부 대표, 주역사고문서보관소 에스.차로츠킨 소장, 사할린주노인회 김홍지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를 총영사를 비롯한 사회활동가, 시민, 조선학교 졸업생 등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인 권행자 가가린



콘스탄틴 곤차로브 참사관은 전쟁 이후 시기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으며 그 당시 사할린사회는 여러 민족으로 이뤄져서 민족 간 문화가 발전을 하기 시작한 때였다고 말했다.

기획전시회의 발기인으로서 사할린주국립역사고문서보관소 전문연구가인 진 올리야 역사학 준박사는 이날 그 당시 조선학교, 일본학교 등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민족학교의 역할을 설명했다.

전시실에는 1945-1964년을 반영하는 많은 사진과 미술 작품, 문서, 자료집 등이 출품되어 있다. 전시회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잠시나마 당시의 역사 속으로 가보고 싶다면 찾아가 보길 권한다.

(배순신기자)
(이예식기자 촬영)

이광수의 <유정>은 왜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했을까

이정식의 <시베리아 문학기행>, 단순한 여행서 아닌 문학기행 담은 에세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았던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를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 중 일부분이다. 소설가인 김영하 작가는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유일한 책으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선택했고,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은 자신의 인생의 책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꼽았다.

명사들 역시 러시아 도시들을 꼭 가보라고 언급한다. 사실 러시아는 사람들이 여행지로 쉽게 선택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이나 아시아 말고도 시베리아·바이칼·몽골을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떠나려는 여행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곳의 매력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듯하다.



《시베리아 문학기행》은 이런 욕구를 반영하듯, 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벨리호보·사할린·바이칼호수 등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저 그곳의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단순한 여행서가 아니다.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체호프·푸시킨 등 러시아 대문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작가 이광수의 흔적을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담은 에세이다. 저자 이정식은 러시아 문학 전문가나 여행 전문 작가는 아니다. 그는 평생을 정치부 기자 등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 시베리아와 러시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러시아 곳곳을 여행하며 점점 더 그곳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그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찍은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평소에 시베리아 지역이나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러시아 문학의 핵심은 바로 '데카브리스트'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데카브리스트는 1825년 12월에 러시아 혁신을 위해 혁명을 일으킨 귀족들을 일컫는데, '12월 당원'이라고도 한다. 혁명은 당일 진압되어 실패했고, 혁명에 가담한 수많은 귀족들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져 처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데카브리스트는 대문호와 대작을 탄생시키는 데 직접·간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뿐만

1937년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집단이주

-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와 정주의 특징 -

진 올리야 (역사학박사, 사할린국립문서보관소) 장 원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서울)

1. 서언

1937년 소련정부에 의한 한인들의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집단이주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한인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의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적응을 하여야 했다.

소련한인들의 집단이주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문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김 게르만, 한 발레리, 부가이 니콜라이, 손 잔나, 리 블라지미르, 체르눌루츠키야 엘레나 등은 집단이주의 역사, 원인, 결과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사할린 한인이주 역사는 사할린의 역사학자와 연구자인 꾸즈민 아나톨리, 빠쉬코프 알렉산드르, 뽀드뽀츠니코프 블라지미르에 의해서 별도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은 1937년 사할린 북부지역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역사와 이주와 수반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목적이다. 논문은 사할린주 국립문서보관소와 카자흐스탄 대통령 문서보관소 문서들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도 있다.

사할린한인의 이주준비와 과정

사할린은 러시아와 소련 역사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37년 소련은 사할린 북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었다. (북위 50도 이남은 일본 가라후토 총독령이었다.) 가상 적국인 일본과의 근접성, 중앙과의 원거리, 연락의 어려움으로 사할린 섬에 대한 통제는 소련 극동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어려웠다.

1920년부터 1925년 까지 일본은 1917년 혁명 후 러시아의 내전의 혼돈을 이용해 사할린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일본군에 저항할 군사력을 갖지 못한 소련정부는 수년 동안 외교적 교섭으로 러시아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고, 베이징평화조약으로 겨우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협약에 따라 소련은 일본 국민과 회사, 조합에 자신의 영토, 주로 사할린 북부지역에서 자원의 채취권을 허가했다. (1932년부터 사할린주는 하바로프스크 변방주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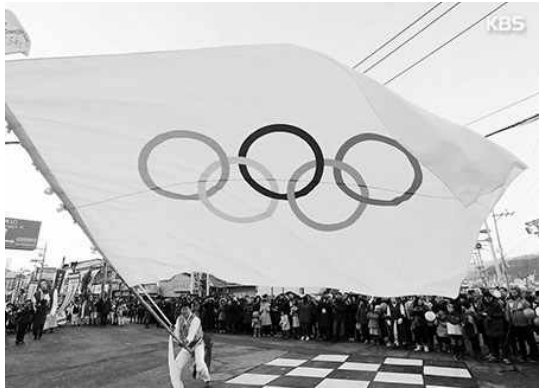
사할린 북부에서 원유 및 어로 분야 이권 개발권을 얻은 일본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권 개발을 위해 일본은 자국민과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감안할 때, 노임과 생활비 부분에서 한인에 대한 지출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다. 이런개발에 작업하였던 한인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Зимняя Олимпиада-2018 приближается

До открытия XXIII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18 года в Пхенчхане осталось чуть больше четырех месяцев, и подготовка к ним находится на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Крупнейшие в мире состязания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ойдут с 9 по 25 февраля 2018 год. Это будут вторы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ет РК. Первыми были летние Игры в Сеуле в 1988 году. Всего в рамках предстоящих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102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в 15 видах спорта. Это значимая цифр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будет разыграно более ста комплектов медалей. На Игры съедутся около 6,5 ты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95 стран мира.



Кроме Пхенчха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городах Каннине и Чонсоне. В Пхенчхане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еми видам спорта: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фристайл, лыжное двоеборье,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и сноуборд. Стадионы Каннина прим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яти ледовым видам спорта: шорт-трек,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хоккей с шайбой и кёрлинг. В Чонсоне пройдет часть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дготовлены 12 объектов, причём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построены специально к Олимпиаде-2018, а остальны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гры в Пхенчхане пройдут в двух кластерах — горном в городе Пхенчхане и прибрежном в городе Каннине.

В горном кластер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объек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снегу. Это горнолыжный центр Alpensia, Центр биатлона, Лыжный центр, Центр сан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горнолыжные центры Ёнпхен и Чонсон, а также снежный стадион «Феникс».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ледов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ойдут в прибрежном кластере в Каннине. Там расположены арены для хоккея, конькобежного спорта, шорт-трека, фигурного катания и кёрлинга.

Олимпийский стадион, на котором пройдут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Игр, расположен в Пхенчхане. Он рассчитан на 35 тыс. мест, включая 350 мест для инвалид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Комплекс «Олимпик Плаза» включает Олимпийский стадион, выставочные павильоны, пресс-центр и помещения для отдыха спортсменов.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ещ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Существующ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теперь пригодна для движения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KTX, построена линия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ончжу — Каннин, проложены 16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дорог к олимпийским объектам. Все спортивные и обслуживающие объекты построены с учётом их последующ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 Олимпийском стадион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ыставки. Вокруг Лыжного центра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площадка для гольфа. Трассы для бобслея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катания на водных санях. Один из трамплинов превратится в обзорную площадку. В заключение отметим, что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будут примен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ргкомитет Игр поставил цель успешно провести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2018, достигнув результатов в пяти сферах, таких как культура, экология,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экономик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KBS World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м обществе

29 сен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ставка приурочена к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стории первого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ери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Период этот был сложным и богатым на события.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это время сыграл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Алимов, начальник Гражда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Крюков и учительница первой советской школы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Анна Васильевна Кудрявцева. Именно они заложили основ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знаменовался очень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миграции — японские жители бывшего Карафута выезжали на Хоккайдо (согласно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у соглашению от 19 декабря 1946 г.), советские граждане прибывали с материка и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вербов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для работы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основном рыбно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островах формировалось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и пестро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отношении общество.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партийной власти,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ли усилия, чтобы разны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не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ущемленными в культурн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е. Были открыты япо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выпускались газеты на япон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ткрывались библиотеки, театр, вещало радио.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ериода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заложить основы равноправного общества,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новое сахал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Именно этим событиям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ыставка. К выставке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брошюра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1945–1964)», авторами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Юлия Дин, Светлана Пайчадзе, Наталья Бржезовска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9 октября в 15:00 в здании музея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ав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узеефикация», в котор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ученые и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а и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ппоро). Ведущая семинара Дин Ю.И.

(Наш корр.)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о. Сахалин в 1937 г.: особенности выселения и вселения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ин Ю.И., к.и.н.
Чжан Вончан, РК

(Начало в № 38)

Иму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оценивается по балансовой стоимости на 1 января 1937 г., имущество приобретенное колхозом с 1 января 1937 г. — по фактической стоимости, необрунанные посевы оцениваются исходя из средней урожайности данной культуры, установленной районным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комитетом по основным закупочным ценам.

Весь скот хозяйств и переселяемых корейцев принимает заготскот и возмещает в натуре на месте вселения. Все неделимое имущество колхозников и единоличников оценивается и оплачивается по страховой оценке. Стоимость имущества выдается на руки или аккредитивами, а также разрешено было сдавать свое зерно по местным пунктам заготзерн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бы сданное зерно было возвращено на месте нового поселения. Переселяемых корейцев направлять в эшелонах, хозяйственно сложившимися коллективами, забирая с собой их инвентарь и орудия ло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высел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воз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изб-читален, библиотек,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наглядные пособия с корейским текстом».

В ответ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ообщили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касающуюся переселения: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имеется 1155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 сентября. В Рыбн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ет 67 семей, в них 283 человека, имеется один несмешанный рыбоп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в количестве 83 [семей], 205 человек и один смешанный колхоз. В Западно-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 31 семья и 191 человек, несмешанных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нет. 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район — 98 семей, 239 человек, смешанных колхозов 2, несмешанных нет. Охинский район — 85 се-

мей, 390 человек, колхозов нет. В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и Кировском районе — 4 семьи, 12 человек».

Такое резкое измен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1932 г. (падение с 3,2 тыс. до 1,1 тыс. человек) видим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той частью предписания о переселении, где было сказано: «Не чинить препятствий переселяемым корейцам к выезду при их желании за границу».

Уменьш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корейцев, предписанных к депортации, иллюстрирует один из до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готовящих переселение:

«По прибытию на место, т.е. на Дуэ, мы сразу же собр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совета, секретаря парткома и начальника контрольного пункта НКВД и рассказали им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решении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после чего проверили по спискам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Дуэ и Макарьевке, при чем числилось по спискам всего 6 семейств корейцев, а при тщательной проверке по баракам выяв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ве семь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руднике Дуэ и Макарьевке имелось восемь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Нами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о проверено путем проверки паспортов у каждого их поддан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оказалось, что из них семь семейств являются японскими подданными и имеют на руках паспорта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ременные визы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СССР. Одна семья Ким-эн-уни состоящая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жена и один ребенок) являются советскими подданными и имеют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сам Ким-эн-уни работал на руднике «Макарьевка» в качестве рабочего. Этому т. Ким-эн-уни нами было рассказано о реш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ереселении. Отно-

шение его к переселению вполне здоровое. Расчеты с ним Макарьевский рудник произвел полностью, никаких недово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Ким-эн-уни не было, а наоборот была высказа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нам з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к быстр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цело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переселении достаточно спокойн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б этом докладные записки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Мне и тов. Белугину было поручена работ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о-первых,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до нашего прихода знало о переселении их в Казахстан.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тем, что вещи были упакованы, кое-какое имущество было распродано. Во-вторых, при обходе квартир корейцами были заданы ряд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сводились к следующему: «какой климат в Казахстане», «Долго ли ехать, говорят, месяцы пройдут», «видимо, дорогая жизнь в Казахстане», «имеются ли школы, техникумы», «другие трудов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тем, как будут их рассчитывать по месту их работы. Один из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едтехникума задал и такой вопрос: «если я не хочу ехать, мне надо закончить техникум». Выводы: В обще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 каждым вел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ые беседы о значении эт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у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строение хорошее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ереселение как правильную политику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ную к объединению всех корейцев и улучшению их жизни».

«От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порту, после моего разъяснения 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ереселении, вопросов особо важных не было, они даже довольны, что поедут на материк.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публикована «Белая книга по вопросам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2017»

2 октября архив документов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СК опубликовал «Белую книгу 2017». В ней изложено 68.940 единиц материалов по данной тематике, что на 5,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же упомянуты 40.932 человека, имеющие к этому отношение.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6,8%.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16 категорий. Жертв таких нарушений зафиксировано 35.453 человека или 86,6% из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4,2% приходится на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это, 8,2% на свидетелей. «Белая книга по вопросам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выпускается ежегодно с 2007 года.

У Юн Гын указал на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ой страной, способной выполнять роль посредника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а также сыгра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ставшей на пут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б этом 29 сентября зая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Юн Гын, назначенный на пост посла РК в России, выступа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гражданских обществ России и РК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 Юн Гын отметил, что Россия сыграла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объединении запада и востока Германии. «Россия, будучи 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Б ООН,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может оказать серьезное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на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и в вопросе воссоедин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 сказал У Юн Гы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итыва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и пересечение интересов, РК и Россия долж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У Юн Гы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 2020 году, когда исполнится 30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обмен челове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увеличится с нынешних 440 тыс. до 1 млн. человек. Заместитель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им Чжэ Чхоль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и заявил,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торой после США посетил не Китай или Японию, а Россию. Это указывает на надежды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осквой в рамках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Он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важн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двух народов, что является фундамен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Мун Чжэ Ина вырос

67,7%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РК одобряют деятельность Мун Чжэ Ина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2,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ей. Рост зафиксирован впервые за четыре недели.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по заказу CBS в период с 25 по 29 сентября среди 2.523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триц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казали 26%. Воздержались от ответа 6,3%. Улучшение уровня поддержки президент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отчасти может объяснять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реакцией населения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у с лидера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равящ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поддерживают 49,7% опрошенных, что на 1% меньше, чем неделю назад. Партию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поддерживают 17,1% опрошенных, Народную партию 6,6%, партию Парын – 5,6%, Партию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6%.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2%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RKI)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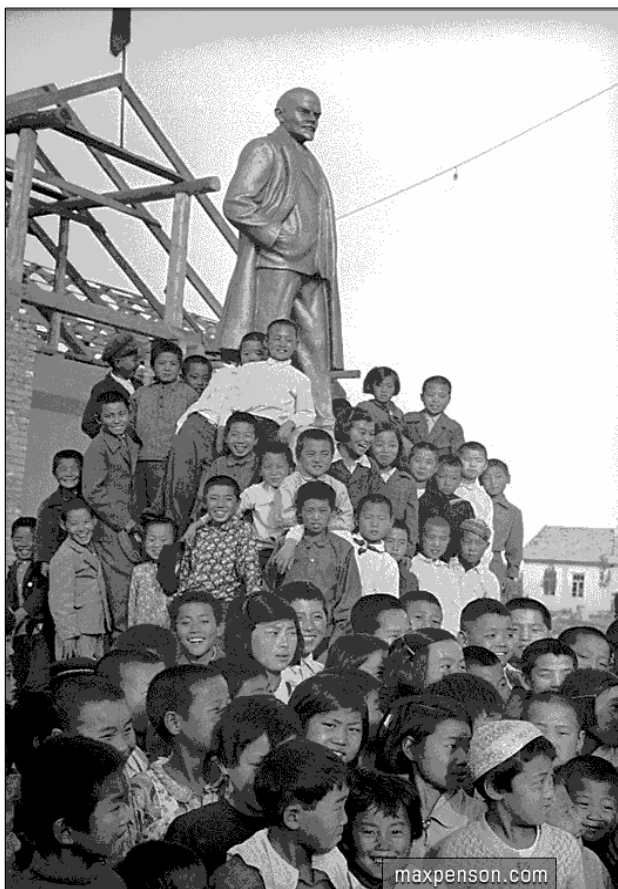
(Начало в № 35, 36, 38)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вопрос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становился вопросом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их границ. Тем временем ситуац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должала давать основания для самых мрачных прогнозов, в июле 1937 года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захватили Пекин и начали захват Шанхая.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Японская империя, поглотившая всю Корею, готова проглотить и весь Китай. Не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потенциальное могущество та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где техническая и военная мощь самураев будет опираться на гигантские ресурсы.

Летом 1937 года начались и первые бои на новой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границе. Так, 5 июня произошло столкновение у озера Ханка, а 30 июня 1937 года на Амуре японцы потопили советский пограничный катер, полностью уничтожив его экипаж.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крывала тень большой войны, и нервы в Кремле на этом фоне не выдержали —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Сталин подписал печально знаменито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Принятое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решение о выселении, обосновывалось кратко: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Мотивы, по которым высшие власти СССР сочли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ой, зародились еще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роиграв сражения 1904–1905 годов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 неприятным удивлением выяснили, чт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поражения явилась прозрачность наш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ля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и, которая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а местных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е дети у памятника Ленину Узбекистан, 1938—1939 год Фотография Макса Пенсона / maxpenson.com

Деятельность спецслужб Японии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е прекращалась и после 1905 года.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 Токио и архивы царской России сохранили немало тому свидетельств об этом. Например, в 1910 год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ркутске и Чите ежемесячно арестовывали по несколько японских агентов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китайцев или корейцев.

Посл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ервая японская резидентура в советском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а раскрыта уже в 1924 году, по итогам были высланы сотрудники япон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се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ситуация оставалась столь же напряженной. В декабре

1934 год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гранохра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асилий Чернышёв докладывал в Москву: «Японцы всемерно усиливают свою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и ведению шпионажа посредст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СССР и с позиц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в Приморье».

Оперативные сводки тех лет пестрят сообщениями о разоблаченных агентах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и корейско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тнюдь не все они являются плодом шпионмании 30-х годов — а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японских спецслужб против СССР подтвержда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архивах. К примеру, отнюдь не склонный симпатизировать сталинизму шведский профессор-историк Леннарт Самуэльсон, выпустивший семь лет назад книгу «Сталин, НКВД и репрессии», отмечает, что для шпионмании были и вполне реальные основания: только в 1934 году персонал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Японии в сопредельных с СССР странах увеличился в три раза, резидентуры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и были созданы даже в странах Прибалтики. Именно японцы организовали самую эффективную,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пецслужбам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разведсе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Власти нацеленной на экспансию Японии тогда не стеснялись ни в методах, ни в средствах шпионажа, работая фактически по законам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стью контролируя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весь север Китая, они имели мощный рычаг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наш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есно связанную семейными и хозяйствен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В августе 1934 года офицеры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и создали нелег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Единой Азии» с подпольными филиалам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6 году в захваченной японцами Маньчжурии заработала «школа»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цев шпионажу и подрывной работ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ья. Главной целью была подготовка в Посьетском район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к югу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восстания корейцев под лозунгом борьбы за автономию и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японской Корее.

Летом 1937 года, наканун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штаб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с тревогой сообщал в Москву: «Оператив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регионе схожа с периодом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ког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овало свыше 2 тысяч японских агентов из числа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анесли серьезный ущерб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Читая такие сообщения на фоне масштабной агрессии Японии и нешуточной угрозы войны, в Кремле приняли жестокое решение разом покончить с азиатскими диаспор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удьбы тысяч людей безжалостно сломала большая политика.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отличить японских шпионов от м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ан Сан Хо, один из многих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днее так вспоминал окончивший 80 лет назад август: «В 1937 году я работал секретарем Посьетского райкома комсомола... В августе к нам в Посьетский район приеха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крайисполкома, он сообщил нам о реш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 глубокий тыл страны и разъяснил причины, вызвавшие такое решение. Официальная версия была такова: в случае военного нападения японцев на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будет выявить японских шпионов и отличить их от м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Японские империалисты, завоевав 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ревратив его в свою колонию,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ербовали себе приспешников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 именно их направляли для шпионажа в СССР. Однако, разве можно было ставить эту малую горсть в одну шеренгу со 100-тысячным населением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ливали кровь в боях против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и японских интервентов наравне с русскими партизанам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трудились на колхозных полях и рыбных промыслах?» — горько восклицал Кан Сан Хо, вспоминая август 1937 года.

(Продолжение)

историк Алексей Волюнец,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бщественный совет утвердил результаты независимой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2017 году

Итоги независимой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за 2017 год утвердили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остоявшемся в сентябре, сформиров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мые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т.г.

В этом году независимая оценка ка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а в отношении 17 организац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услуги взрослому населению.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стационарной, полустационарной и домашней форм, условия их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 другие параметры проверили в 4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х интернатах, 7 домах-интернатах общего тип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для лиц без определенн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Кро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первые в этом участвовали четыр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разные методы сбора информации: опрос получателей услуг (почти 1,5 тыс. человек), натурное наблюдение в учреждениях, анализ сайтов и т.д.

Все учреж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у, получи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качества.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абрал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дом-интернат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31 балл). Также в тройке лидеров Кировский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т (29,66) и Ногликский специальный дом-интернат (29,56).

Достои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также у полустационарных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адость жизни» и А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ебный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й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нуждающимися на дому.

В целом итоговый рейтинг подтверждает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аче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участников независимой оценки. С учетом д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м советом б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строят в селе Нов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ФАП в Новом – один из пяти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возводятся сейчас в разных с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ощадь монолитного здания составит больше 1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ействующий медпункт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и давн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анитарным нормам.

- Регулярно обращаемся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Всё хорошо, тесновато вот только там. Он ведь в бывшей трёх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е размещается, – рассказывает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Мария Климакина.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готовятся к заливке стен одно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впоследствии снаружи установят фиброцементные панели япо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истема отопления и горяче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здании будет автономная. Внутреннюю отделку выполнят под ключ.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Сейчас в процесс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5 бетонщиков. Мы обеспечены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материалом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рокладки коммуникаций, – отметил мастер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Сергей Саватеев.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Новом пытаются решить и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 ищут фельдшера. Пока в пункте за двоих работает медсестра Ольга Корсанюк. Углубл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проводятся во время выезда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акаровской ЦРБ. Также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месяц, проводит прием терапевт.

- Работаю медсестрой в пункте уже 17 лет. Я здесь родилась, всех прекрасно знаю. Часто приходится и на дом приходить, – делится Ольга Васильевна. – Новый ФАП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в более удобном месте, где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находится.

- В этом году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также возводят в селах Новиково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и Парусное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 Новые амбулатории вскоре появятся в Арги-Паги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и Яблочном (Холмский район).

- В селе Яблочное сдвинулись сроки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мбулатории из-за затянувшегося процесса по выделению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Сейчас этот вопрос решен. Мы постараемся нарастить темпы работ, – отмети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Антон Ли.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ей по всем медобъекта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их территорий,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арковок.

Два из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26–28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шла 20-я юбилей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выставка «Печатный Двор»,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издател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площадке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книжной ярмарки - выставки прошло главное событие —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ремии им. Матвеевых, определение лучших книг го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 на суд жюри две свои работы – изд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каторг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начало XX в.).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в 2 томах и фотоальбом «По Земле Тысячи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1946 года». Свои стенды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50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узовских издательств, творческих союз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Амурской, Магаданской, Чит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Камчат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26 сентября были названы лучшие книги го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автор (авторский коллектив)» победа присуждена изданию «Сахалинская каторг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начало XX в.).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в 2 том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плома финалист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изд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территории» удостоена другая работа сахалинских архивистов – фотоальбом «По Земле Тысячи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1946 года».

Премия им. Матвеевых учреждена в 2015 году Приморской краевой публич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имени А.М. Горького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АТАПРЯЛ),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для поощрения авторов и также лучших изд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посвященных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му дн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К его началу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оздан 45-суточный запас топлива, завершилась паспортизация котельных, подготовлены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энергетики.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ключение к теплу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и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На случай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сформированы 104 аварийные бригады, в составе которых - 689 человек и 293 единицы техники.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штаба,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данную работу.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предприятий 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и энергетики,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главы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К теплу уже подключены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и жилищный фонд в 16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митрий Зайцев. Еще в дву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Неве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чнется немного позднее - до 15 октября. В обоих районах среднесуточные температуры воздуха пока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ие.

- Всего на складах в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около 95 тысяч тонн угля и 2,5 тысячи тонн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Это даже больше заданных нормативов, - отметил глава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шительный запас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которого хватит на большую часть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создается на Курилах. В этом месяце на острова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и Итуруп планиру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оставить свыше 4 тысячи тонн дизтоплива.

Решаетс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вопрос об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у городскому округу для закупки угля. Часть запасов твердого топлива здесь смыло потоками воды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мощного тайфуна.

- Имеющихся на складах запасов угля хватит до весны,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андр Серебряков. – В целом район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к прохождению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В дома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мы подаем тепло с 27 сентября.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заменено более 30 километров ветхих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еще около 40 километров водопроводных труб. Проведены капитальные ремонты на 85 водозаборах.

В энергосистеме создан необходимый резерв мощности – более 100 мегаватт. Все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получили и резервные электрогенераторы. Суммарная мощно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 более 34 мегаватт. К примеру, установили такой агрегат на водозаборе «Медвежье озеро»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он недавно прошел ис-

пытания – из-за аварии на объектах энергетики в домах горожан на полчаса погас свет, а вот подача воды не прекраща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каждом 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имеются передвижные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ы. Еще 12 таких устройств получил областной аварийный резерв. Его пополнила и мобильная станция повышенной мощности,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выдавать 550 киловатт электричества. В резерв также направлены стальные и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трубы различных диаметров, тягодутьевые машины и химическая продукция.

- Все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к прохождению осенне-зимнего периода 2017-2018 годов, - сделал основной вывод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 работу уже запущены 185 котельных из 226. К теплу подключено 73 процента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нет 100 процентов - со снижением среднесуточных температур воздуха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чнется в Неве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На Сахалине повышают доступность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профи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коек, закупа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 На наших площадях на 4 этаже находились 2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кабинета. Мы нашли возможность и переместили их на 1 этаж этого корпуса. Отделение увеличилось с 55 до 65 коек. В среднем количество пролеченных больных увеличилось на 50 человек в месяц, – познакомил с изменениями заведующий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алерий Строк. – Хирургия у нас 80-90% занимает, 60% из них приходится на катаракту. Не секрет, что есть очередь из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лечени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Если бы мы только им занимались, то мы бы ее ликвидировали. Но мы занимаемся 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м лечением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 травмами к нам поступают. Есть у нас и детские койки.

В эт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казываю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занимаются лечением возрастной дистрофи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сетчатки. Для этого используется специальный медпрепарат, он вводится в центр глаза. Одна инъекция стоит окол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приобретено 350 флаконов.

- При этом заболевании пациент видит неправильные края предметов. Искаженные двери, окна и так далее. Либо пятно черное перед глазом. Мы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используем этот препарат, с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им эффектом. Он позволяет остановить процесс ухудшения зрения,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наблюдается улучшение, –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офтальмоло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Жарская. – Этот препарат используется и при близорукости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Она диагностируется у пациент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есть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м по 36-40 лет.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этих заболеван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оптический когерентный томограф. В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он уже более 6 лет, пока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на острове, в котором есть т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ейчас идет процесс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ещё двух единиц.

- Потребность в этой диагностике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ая, пациенты с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Сейчас им приходится ждать очереди. Поэтому покупка этой техники позволит снять ряд вопросов, – приводят аргументы специалист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отм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музыки

1 октября во всем мире отмеч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музык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э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в стенах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чным концертом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 этот вечер со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извест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семи любим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Чайковского, Равеля, Россини и др. В программу концерта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ных эпох и стилей, от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классической до современной музыки XX столетия.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лледжа: В.Киносита (виолончель), М.Игнатьев и С.Антонов (балалайка), О.Сальников (баян), М.Лапонов (балалайка), Д.Туркот (флейта), П.Алдаков, Е.Кондратьева (вокал) и другие,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лледжа: хоровой ансамбль «Ю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руководитель О.Мальцева), ансамбль «Белые росы» (руководитель Е.Алешко), брасс - ансамбль (руководитель А.Кононен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결의문 채택하며 폐막'

세계 한인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29일 폐막했다.

75개국 한인회장과 연합회 임원 40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남북 간 대화의 적극적 참여 촉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센터 건립 촉구, 역사적 피해를 입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총 10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한인회장들은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을 확대 및 지원하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역할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28일 진행된 지역별 현안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인회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별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폐회식에서는 한인회장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2천 2백만 원을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했다. 이들은 글로벌한상드림을 통해 국내외 차세대 인재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모국의 사회통합과 미래 한상 인재육성을 위한 모국어 교육 및 장학사업, 국내외 한



상교류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또,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인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과 남창규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오공태 대회 공동의장은 폐회사에서 "대회기간 내내 심도 있는 논의와 대화 및 소통을 통해 모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모아진 한인회장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대회의 공동의장에는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본 신문 지난호에 실린<올해 한상대회, 10월 25-27일 창원서 열려>란 기사에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 기사를 아래에 다시 한번 게재함. 본사 편집부.

올해 한상대회, 10월 25~27일 창원서 열려

한민족 최대 경제교류의 장인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약 50개국 3,5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한다.

대회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밉글링,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한상 네트워킹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상의 밤,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 등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의 대회를 통해 다져진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고, 모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모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는 한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 세계 경제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된다. 동아시아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극동지역 투자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을 비롯해 '4차 산업 세션', '금융 세션', '학술 세션'으로 세분화해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 교류와 참가자 간 네트워크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처음 신설돼 한상 네

트워크 고도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밉글링>은 시간을 늘려 확대 운영한다.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지역별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 참가자들과 어울리며 심도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기업전시회 참가업체 중 사전 선정을 통해 '우리상품 자랑전' 코너를 신설하고, 지역별 연합회 대표 소개 및 청중개별 PR 시간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의 대회를 거쳐 글로벌 인재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한상 & 청년, Go Together!>는 참여기업과 채용규모를 더욱 늘리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 해인 2015년에는 22명의 인턴을 최종 선발한 데 이어 작년에는 36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부터는 대회기간 중 1회 채용에 그치지 않고 연 3회에 걸쳐 채용규모를 확대 모집한다.

현재까지 2기와 3기 모집을 통해 106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며, 이번 대회기간에는 100여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한상&청년, Go Together!>를 전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4기 현장 면접과 특강 및 토크 콘서트,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Be Partner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어줄 연사들의 특별 강연도 눈길을 끈다. 이번 대회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임지훈 카카오 대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한상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친다.

둘째 날 열리는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조성진 부회장과 임지훈 대표가 연사로 나서 성공 신화를 일궈낸 자신만의 경영 노하우를 전하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글로벌 시대와 한상대회'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대회의 말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리한 첨단 산업도시인 창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내외 기업인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상대회가 국내외 동포경제인들에게 '한민족 최고의 비즈니스 장'으로 다시 한 번 각인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으로, 명실상부한 한민족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82-2-3415-0052, hansang@okf.or.kr)

(재외동포재단 제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5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대화 Диалог

할아버지: 사샤! 너는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안드레이: 물론 제가 태어나서 자란 우즈베키스탄이지요. 그렇지만 저의 피는 고려인이고 저의 조상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의 역사적인 고향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래, 네 말이 옳다. 나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났지만, 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러시아로 독립운동하러 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란 다. 구소련에는 이동휘, 홍범도, 계봉우 선생 등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서 많이 계셨지.

안드레이: 그런데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 타슈켄트까지 오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그것은 아주 긴 얘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인 1937년 8월 소련 정부의 한민족 이주 명령에 의해 연해주에 살던 17만의 한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를 하였단다. 그때 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살고 있었는데, 살던 집이랑 농토를 다 버리고 한 달 동안이나 화물 열차에 실려 이 머나 먼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었던단다.

안드레이: 할아버지, 그럼 그 때 정부에서는 집을 제공해 주었나요?

할아버지: 일부는 가옥이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은 황무지에 갈대로 엮은 집을 겨우 만들었던단다. 그때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의 도움이 많았지. 그들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려인들에게 먹을 것과 거주지를 제공해 주었어. 너희들은 이들의 도움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라.

안드레이: 고려인들은 그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할아버지: 고려인들은 본래의특유한 근면함으로 한인 집단농장을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와 황마, 면화 등을 심어 소련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인촌을 만들었던단다.

안드레이: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김병화농장, 폴리타오젤, 아방가르드,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가 모두 한인 콜호즈이군요!

할아버지: 바로 그렇단다. 그 중의 김병화 남은 고려인 중에서 최고의 영예인 이중 노력영웅이 되었단다. 고려인의 자랑이지.

안드레이: 할아버지,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우즈베크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셈이네요.

할아버지: 허허, 녀석 녀석이라곤……. 아무튼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역사적 조국인 한국을 잊어선 안 된단다. 나는 비록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묻힐 거지만 너희는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도록 해야 해.

안드레이: 네, 할아버지.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조국—Родина; 조상—предок; 독립운동—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정부—правительство;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가랑—окол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화물열차—товарный поезд; 황무지—пустошь, залежная земля; 근면함—трудолюбие; 공헌하다—вносить вклад; 집단—коллектив; 모범—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만수무강—долголетие без проблем.

문법 Грамматика

Лингвистика. Диалектология.

Диалект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고려말의 특징

Прежде чем говорить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зновид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пользуемой корейцами стран СНГ,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корёмаль (고려말), необходим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проникнов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началась с 1864 года. Имен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явилось первое корейское поселение - небольшой поселок, состоящий из полутора десятка семей. Поселок назывался Тизинхе. Со временем поток 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увеличился. К концу XIX началу XX число корейских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인하대 · 국립국어원, 코르사코브 한글학교에 물품 전달

지난 9월에 인하대와 국립국어원 파견으로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예비교원들이 10월 1일에 코르사코브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명의 예비교원(김송현, 송현아)은 2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자모음 수업과 초급 수업을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예비교원의 수업에 집중하며 교사를 따라서 발음하고 쓰며 한국어 공부에 열의를 보였다.

이어 인하대 사업단의 책임자인 최권진 교수가 코르사코브 한글학교에 한복, 사물놀이, 단어카드, 교재 등의 물품 증정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본사기자)

최권진 교수는 '국립국어원과 진행하는 이번 예비교원 파견 실습을 기회로 사할린의 한글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증정하는 물품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보급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코르사코브시 이태준 한인회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Конкурс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два этапа: презентация и оценка костюмов. Он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12 ок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и Корсакова.

Заверши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парадом сказочных героев,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минацией шествия станет флэшмоб. Дети составят фигуру сердца, окруженную хороводом. Это официальный символ семейного экофестиваля "Добрые сердца Сахалина".

사할린에서 애국적인 책 축제가 개최

사할린에서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제3회 지역 간 애국적 도서 축제가 진행된다.

사할린주과학도서관 홍보실에 따르면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워시비르스크, 수스달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문학평론가, 산문 작가와 시인들로 구성된 창작그룹은 주내 12개의 지방자치체의 독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신간 서적과 잡지 <낮과 밤>·<시베리아의 등불>·문학예술선집 <사할린 2017>을 소개하고 초보 작가들을 위한 세미나, 실습, 음악의

밤과 시인이자 음악가인 마리아 쉼플라코와의 차임벨(중소리) 공연이 있다.

제7회 <사할린 아르바트> 독서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공식 개막은 10월 9일 12시에 있을 예정이다. 주과학도서관 측은 앞마당에서 참석 희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книги

На Сахалине с 7 по 15 октября пройдет III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книги «О России – с любовью».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творческую группу войдут литературные критики, прозаики и поэты из Москвы, Красноярска, Новосибирска, Суздаля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встретятся с читателями в 12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 программе -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ых книг, журналов «День и Ночь», «Сибирские огн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борника «Сахалин-2017», семинар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исателей, акции, а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й вечер и исполнение колокольного звона поэтом и музыкантом Марией Тепляковой.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9 октября в 12:00 в рамках VII библиоярмарки «САХалинский АРба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ждут на площадке у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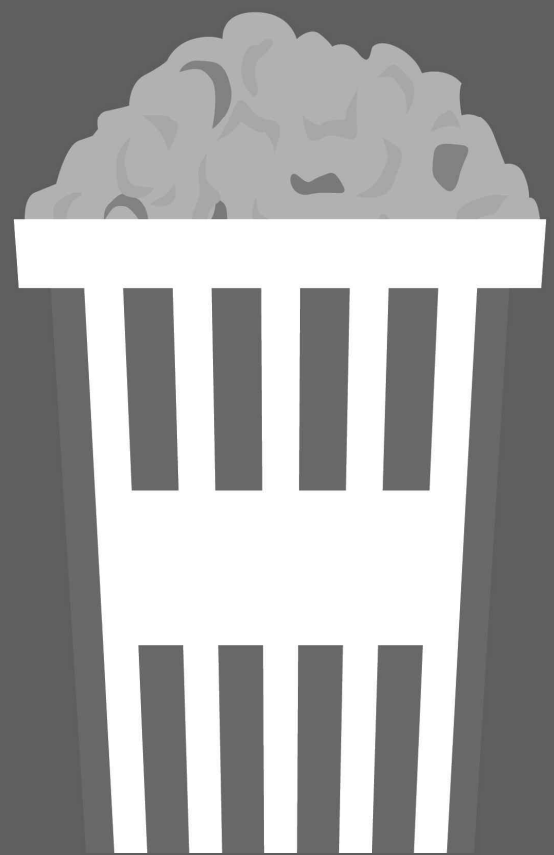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